

은밀하고 위대하게... ‘럭셔리 브랜드’의 비밀을 벗기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UNVE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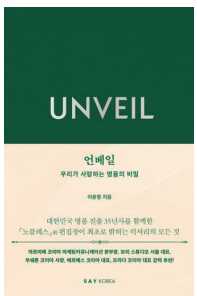
이윤정 지음

탁월한 품질, 시간을 뛰어넘는 디자인, 견고한 브랜드, 역사와 유산, 희소성, 장인정신.

위에 나열한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명품’이다. 원래 명칭은 ‘Luxury’다. ‘호사’와 ‘사치품’을 의미하는데, ‘분에 넘치는 소비’라는 의미가 환기된다. 그러나 ‘사치’를 대신할 수 있는 말로 ‘명품’만큼 적합한 용어는 없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견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럭셔리 브랜드의 비밀을 다룬 ‘UNVEIL’이 나왔다. 20년간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노블레스’에서 기자와 편집장을 맡았던 이윤정이 저자다. 명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가 여러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가 주목하는 시장이 되기까지 현장을 취재한 경험과 통찰을 담은 책이다.

명품은 특정 제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명품은 다양한 분야에서 차용되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해 공공건물, 생활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남발되는 명품이라



는 명칭은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저자는 진정한 명품의 조건을 비롯해 럭셔리 브랜드의 비밀과 힘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UNVEIL’은 말 그대로 베일을 벗긴다는 뜻으로,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와 ‘명품의 세

계’ 등을 아우른다.

여성 핸드백 명품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에르메스다. 에르메스 ‘켈리 백’은 모나코 공비였던 그레이스 켈리라는 이름에서 따왔다. 본래 명칭은 ‘프티삭 오트 아 크루아’였지만 특정 장면이 계기가 돼 많은 이들에게 각인이 됐다. 그레이스 켈리가 빨간 악어가죽 가방으로 임신한 배를 가린 사진이 ‘LIFE’에 게재되면서 ‘켈리 백’으로 불렸다.

샤넬 2.55 핸드백은 샤넬의 설립자 가브리엘 샤넬이 1955년 내놓은 명품이다. 당시 여성들은 손에 드는 클러치 백을 사용했는데 가브리엘 샤넬은 여성의 손을 자유롭게 해주자는 의도로 어깨에 걸치는 가방을 만들었다. 금색 체인 스트랩이 달린 쉐링 울더백이 탄생하게 된 이유다. 2.55 백은 다양한 컬러, 크기, 소재로 변주됐지만 원형의 디자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에르메스의 ‘버킨 백’의 위상



1990년대 중반 국내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을 장악했던 뱅앤올룹슨 뮤지엄.

〈SAY KOREA 제공〉

도 만만치 않다.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한 장면이 이를 방증한다. 극중 인물 사망자가 에르메스 매장에서 이렇게 불평한다. “가방 하나 사려고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요?”라는 불평에 직원 대답이 “결작”이다. “그냥 가방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버킨이라고요.”

저자는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를 만나오며 감명 깊었던 지점으로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꼽는다. 지난 2000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네덜란드 건축가 람프하스는 “디테일은 디자인

의 핵심이다.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고객의 기대치와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완성도 구현을 위해 ‘디테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디테일한 손끝이 절정을 이루는 부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이엔드 시계의 다이얼이다. 하이엔드 시계의 다이얼 장식 중 많이 사용되는 패턴은 ‘기묘 세 패턴’이다. “정교하고 반복적인 기하학적인 무늬를 금속 표면에 새기는 공예기술”로 바세론 콘스탄틴이나 브레게 같은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럭셔리 브랜드를 홍보할 때 일반적인 요소로 내세우는 것은 ‘장인정신’이다. 숙련된 전문가가 만들었다는 것으로, 반클리프 아펠에서는 이들을 ‘황금 손’이라 부른다. 저자는 까르띠에 팬더 컬렉션의 털을 표현하는 것도, 루이 비통의 트렁크 손잡이와

모서리 부분도 사람의 손이 아니거는 정교함을 구현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에게 일관된 콘셉트를 전달하는 데도 역점을 둔다. 정체성의 혼란은 브랜드 입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인 레이철조는 “스타일이란 말하지 않고도 당신이 누구인지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즉 스타일은 시각화된 콘셉트인 셈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럭셔리 브랜드가 추구해 온 가치와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가 가진 스토리와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럭셔리를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SAY KOREA·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 말하게 하라

김인환 지음

“나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을 그 시대의 내부에서 바라보면서 공감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였고 시대마다 철학이 시대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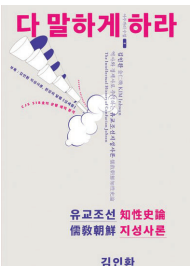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김인환(79) 고려대 명예교수는 신간 ‘다 말하게 하라: 유교조선 지성사론’에서 조선 518년(1392~1910년)을 ‘유교조선’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李)씨가 세우고 지배한 조선’이 아니라 유교(儒敎) 이념이 세우고 지배한 조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는 ‘문학이건 사상이건 과거는 과거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내재분석론(內在分析論)을 틀로 삼아 조선시대 지성사의 큰 흐름을 통찰한다.

‘지성사론’이라는 부제는 독자에게 열핏 딱딱하고 난해한 논문 모음집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실제 책장을 넘기다 보면 ‘근대’라는 잣대를 벗어난 저자의 탁월한 시선과 문학·역사·철학을 아우르는 사유, 논리정연하게 풀어내는 문체에 금세 매료되고 만다.

저자는 조선시대를 정조-형성-동요-안정-하강-이행의 6단계로 구분하고 세종과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삼연 김창흡, 수운 최제우, 해강 최한기 등과 같이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과 토지제도 등 경제사를 통해 ‘유교조선’의 허상을 꿰뚫는다.

‘유교조선’의 흐름은 현재와도 맞닿아있다. “한글과 동학을 만든 것만으로도 한국의 전근대는 제 할 일을 충실하게 완수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저자의 지론은 내란 정국에서 입증됐다. ‘계엄 뿌리도 조선에 있지만, 그 계엄을 해제한 야광봉의 뿌리도 조선에 있다’는 것. 김영원 작가의 현장 기록사진 16점이 함께 실려 있다. 당대의 시각에서 조선 518년을 읽어내는 저자의 통찰은 독자들에게 ‘유교조선’이 남긴 유산과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 〈수류상방·3만3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조선을 읽는 법, 단

장지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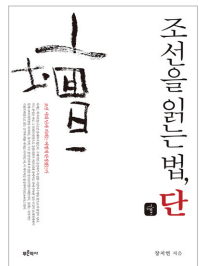
‘유교의 나라’라는 수식어로 단정되곤 하는 조선. 한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성리학적 세계관, 왕과 신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부터 ‘국조오례의’와 같은 예시로 치밀하게 구성된 의례까지, 이러한 촘촘한 규범은 조선을 이념에 갇힌 탁상공론의 국가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조선은 과연 그렇게 일방적인 질서로만 움직였을까?

최근 출간된 ‘조선을 읽는 법, 단’은 그러한 통념에 의문을 던진다. 저자인 장지연 대전대 교수는 ‘단’이라는 의례의 공간을 매개로 조선의 예치(禮治)가 지향한 이상과 그것을 둘러싼 현실의 긴장 관계를 분석했다.

의례 중에서도 ‘단’은 하늘, 땅, 산천, 농경의 신처럼 신격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장소다. 책은 조선 한성을 중심으로 도성 안팎에 자리한 단들을 분석하며, 조선이 의례를 통해 어떤 국가적 비전과 사회적 규범을 실현하려 했는지를 탐색한다. 사직단, 선농단, 여제단, 선잠단, 풍운뢰우산천성황단, 우사단 등 수도를 둘러싼 다양한 단은 단순한 제사의 장소가 아닌, 조선이 이상국가로서의 자의식을 형상화하고 드러내는 의례적 무대였다.

저자는 조선의 의례가 오늘날 ‘이념의 과잉’ 혹은 ‘탁상공론’으로 읽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의미망과 작동 논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선 전환의 시기, 단은 새로운 권력과 공동체의 형식,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구현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책은 단을 중심으로 조선을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과거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교정하고, 우리가 지나온 길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를 제공한다. 〈푸른역사·2만9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우주여행자를 위한 생존법

폴 서터 지음, 송지선 옮김

최근 파스타 케이트 페리를 비롯해 영화 제작자, 시민운동가 등 6명의 민간인 여성이 10분여간의 우주 여행을 다녀와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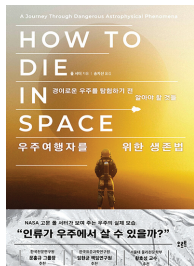
바야흐로 우주의 시대다. 미 NASA는 달에 다시 유인우주선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우주여행은 더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NASA의 고문이자 천체물리학자 폴 서터가 최근 ‘우주여행자를 위한 생존법’을 펴냈다. 폴 서터는 우주여행을 앞둔 이들에게 “우주는 위험한 곳이다”고 단언하며 망원경을 사 멀리서 즐길 것을 추천한다. 별빛 가득한 낭만의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우주의 진공 공간 속에서 우리의 몸은 두 배로 부풀고, 갑자기 날아온 혜성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혹은 별 표면이 폭발하면서 나오오는 방사선에 피폭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저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떠나는 이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지구를 떠나면 만나게 되는 진공의 공간, 태양계와 우리은하에서 펼쳐지는 우주현상들, 블랙홀이나 암흑 물질은 물론이고 양자역학의 개념까지 우주여행자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세세하게 나열했다.

“여행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100만 년 동안 안정적인 것이라 말했던 별이 갑자기 초신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요 저 대신 물리학을 타세요.” 저자 특유의 ‘우주 농담’은 복잡한 우주와 물리학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거친, 그래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오르트·2만5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